하원은 NRO에 기상위성을 보낼 법안을 통과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지환 (연구원)

하원이 목요일에 투표를 진행한 후 국가정찰국은 공군으로부터 기상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취득 프로그램들은 구름 특성과 기상 영상의 국가보안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2017년 국방인증법 초안 작성이 4월 이후로 움직임이 예상되어진다. 하원 군사 전략부대 소위원회는 공군이 기상임무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것을 원했다.

위원회는 공동 요구 사항 감독위원회가 인증한 공간기반 환경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군의 계획, 조정, 활동실행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4월 초안에 첨부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기상임무의 움직임이 2017년 390-30 개표로 하원에서 통과된 재무정보보호법의 한 부분이다. 이 법안이 많은 야당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원으로 가고 있다.

스파이 위성을 조정하는 NRO는 군사기상감시위성 구매를 책임진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의회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공군으로부터 프로젝트자금을 기관으로 전환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회지도자들은 공군의 기상위성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2016 NDAA에서 기상위성 작동에 대한 서비스의 요청금액보다 2천만 달러 적은 5,600만 달러만 인정되었다.

4월 15일 SpaceNews의 인터뷰에서 Air Force Space의 장 Col. Mike Guetlein과 미사일 시스템 센터의 원격감지담당부서는 제공 되는 지역의 날씨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조건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RO는 1960년대에 국방기상위성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왔다. 하지만 그이후로 공군으로 그것들을 넘겨주었다.

SpaceNews는 공군, NRO, 의회에게 연락해왔고 사용가능한 더많은 정보들을 업데이트 할 것이다.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pacenews.com/house-passes-bill-that-would-send-weather-satellites-to-nro/